



연변, 약품산업 발전의 새 동력에너지 활성화

올해 1 분기에 연변의 의약제조업은 공업총생산액 30 억원을 실현하여 전년 동기 대비 0.6% 성장하고 전월 대비 25.9% 포인트 성장했다. 이러한 성적은 전 주적으로 의약산업의 전반 사슬을 둘러싸고 협동혁신하고 발전의 새 동력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이룩한 것이다.

길림오동약업그룹주식유한회사 고체작업장(固体车间)에서는 현대화 생산라인이 질서있게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따금 약초 향기가 코를 자극한다. 검사에서 합격된 약품들을 포장공들이 박스에 담아 포장하고 출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량질의 약품들은 곧 시장으로 나가게 된다. 2024년, 이 그룹의 록용, 인삼, 령지, 오미자 4가지 약재가 전 성에서 첫진으로 신판 GAP 연장검사를 통과한 품종으로 되었다. 또한 인삼과 록용은 '3무1전' 브랜드 인증을 받았고 인삼은 '2024 명산지 약재 브랜드'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질 좋은 원자재는 지능화 생산라인을 통해 안전보노액 등 주력 제품으로 전환되어 '약재밭에서 작업장까지'의 품질 폐쇄 루프(闭环)를 구축했다.

연변은 오동약업 등 선두기업의 시범적인 선도로 중약 공급사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돈화와 안도를 중점 발전구역으로 삼고 중국 북방 명산지 약재 재배원, 인삼 전 산업사슬 표준화 시범원, 평패모(平贝母) 표준화 생산기지를 전력으로 건설하여 규범화, 현대화한 재배 및 정밀가공 수준을 힘써 향상시킴으로써 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원료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전 주 의약기업들은 상류 원자재 공급을 확고히 하는 토대 위에서 품종 혁신사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청화대학, 길림대학, 중경중의학원 등 국내 중점 과학연구원(소)과 적극적인 협력을 구축했는데 2024년에 루게로 3억원이 넘는 과학연구 경비를 투입하여 76개 품종을 연구 및 2차 개발에 사용했다. 여러 기업들은 자신의 우세에 발맞추고 혁신 분야에서 각



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오동연변약업은 안신보노액, 소아시계(柴桂)해열구복액 등 대품종의 2차 개발을 펼쳤다. 길림화강약업은 1.1류 혁신약 소아 황금 기침 방지 과립 생산 심사평가를 통해 은화비염령편(银花泌炎灵片), 만성 전립선염 적응증 개발과 지록뢰타정(地氯雷他定)구복액모조(仿制)항목을 새로 증가했다. 1 분기에 오동연변약업의 '폴리에틸렌 알콜눈약'은 국가약품감독국의 '약품 등록증서'를 획득하고 안목지평아타파타딘갈시움(氨氯地平阿托伐他汀钙) 등 6개 품종을 기업간 도입했다. 동북아약업은 황금경엽(黄芩茎叶)해독캡슐, 계담(鸡胆)구복액 등 중점 제품에 대한 공예 승격을 진행하고 있다. 사환오강(四环澳康)약업과 지역내 기업들 사이의 12개 품종의 생산 판매 협력을 전개하도록 추진하고 초선(草仙)약업이 2개 화학약 제품을 새로 도입하도록 지지했다. 길림금파격(金派格)약업은 폴리에틸렌글

리콜(PEG), 생식건강류 제제의 생산능력이 점차 확대되어 신규 생산액이 3,600 만원에 달했다.

시장 돌파 배후에는 표준화 건설과 다원화 시장 배치의 협동 추진이 작용했다. 주내 기업들은 명산지 약재 우세에 의거하여 중약조제과립 분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오동연변약업은 500개 품종의 등록을 완수하고 <중약조제과립 립상 사용 지침> 편성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의리기구와 약품 판매의 3개 단말(终端)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립상 보급으로 제품 판매를 이끌어 성내 5개 병원, 성외 20개 2급 이상 의리기구 및 국내 수천개 기증의리기구에서 오동 중약조제과립과 중약옴편을 성공적으로 보급, 사용하도록 했다. 제품은 강소, 상해, 중경 등지에 파급되었는데 중약조제과립의 연간 영업수입이 1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생태의 구축은 발전의 동력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집결시키고 있다.

연변은 상해의약, 료녕제약, 북경동인당 등 선두기업과의 련결 교류를 강화하여 중약재 가공, 중약제제 개발과 켈레이(凯莱英)련속반응기술 등 분야를 둘러싸고 투자유치와 련결을 전개했다. 현재 길림켈레이의약 메트포르민(二甲双胍)원자재 약 생산기술 대상 등록 심사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동 중초약 지능화 창고, 켈레이생물, 호태생물, 오동생물 등 약품 원자재 대상이 서둘러 건설되고 있다. 연길세포산업단지, 카슨(길림)세포자원고관리유한회사가 운영에 투입되고 길림심초생물 세포 저장과 기술봉사 대상이 서둘러 건설되었다. 이 밖에도 화강약업공업단지, 초선약업, 오동금해발약업 등 지능화 신축 대상들이 전부 생산에 투입되어 효익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오동연변약업 확장 승격 대상(2기, 3기), 중약조제과립 대상이 전부 조업을 실현했는데 바 년간 신규 생산액이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길림일보

제 7 회 전국문명도시 명단에 길림성 세곳 입선

5월 23일, 전국정신문명건설표창대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중앙선전사상문화사업지도소소는 202개 도시(구)에 전국문명도시(구) 칭호를, 3,316개촌진에 전국문명촌진 칭호를, 4,688개 단위에 전국문명단위 칭호를, 798가구에 전국문명가정 칭호를, 890개 학교에 전국문명학교 칭호를, 60명(팀)

동지에게 제 9 회 전국도덕모범 영예 칭호를, 239명(조) 동지에게 제 9 회 전국도덕모범 후보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길림성에서는 휘남현, 장백조선족자치현,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현이 제 7 회 전국문명도시로 선정되었다.

/ 인민넷

제 63 회 중국고등교육박람회 장춘서 성료



▲ 기업전시관에 전시된 로봇

5월 25일, 제 63 회 중국고등교육박람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장춘 동북아국제박람센터에서 폐막되었다. '융합·혁신으로 교육강국 건설에 힘을 보태자'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전국 1,000여개 대학, 800여개 과학기술기업, 3,000여명 교육계와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하고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현장에서 57개 중점대상 계약이 체결되고 1.31만개 일자리가 공개되었다.

이번 고등교육박람회는 동북진흥특별관, 인재채용관, 기업전시관, 실의체현관 등 4개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1.6만평방미터 규모의 동북진흥관에는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21개 명문대학, 동북 3성과 내몽골의 80여개 대학이 참여해 AI 교실, 친환경 레이저 청정기술 등 200여개 첨단 성과들을 선보였다. 인재관에는 중국제 1자동차, 장광위성 등 주요 기업에서 1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AI 지능 시스템, 라이브 채용 등 '온·오프라인 + 스마트형' 립체적 채용 써비스로 동북지역 인재유치에 기여했다. 기업관에는 화위, 유수기술 등 800여개 글로벌 기업이 스마트 교실, 모니터링 실험실

등 교육기술 최신 제품을 전시했다. 실의관에서는 무인운전 자동차, 중의학 AI 진단, 로봇 경기대회 등 혁신 행사들이 인기를 끌었으며 길림 홍색교양, 동북아 '장려호' 특별관에서는 민족문화, 특산물, 중국-로씨야 경제문화 교류 등 지역 협력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학 과학기술 성과 전시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길림대학의 '지각 1호'만메터 시추기 모형, 길림철도직업기술대학의 자체 개발 격투 로봇등 혁신 성과가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외 산학 협력 성과도 두드러졌다. 동북사범대학과 기업이 공동 개발한 고단백 밀가루 제품, 장춘재경대학과 사슴양육 기업의 라이브 마케팅 대상 사례 등이 산학 협력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화위, 초성그룹 등 700여개 기업은 인공지능 교육 제품을 통해 지능형 캠퍼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개최된 '교육강국 건설·고등교육 개혁발전 포럼'에는 북경리공대학당위 서기 장군 등 12개 대학의 책임자들이 참여해 '학습자에서 창조자 양성으로의 전환' 등 혁신적 교육관을 제안했다. 14개 분과 포럼에서는 사상교육·학과설정·인공지능교육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심층 토론도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명문대학 참여, 최대 성과 전환 등 기록을 세우며 길림성의 교육자원 우세를 립증하고 고등교육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행사 기간 총 80여개 산학 협력 대상이 성사되면서 동북아국제박람센터는 교육 혁신 성과 전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 주둥기자



2025 제 1 자동차흥기 장춘마라톤대회 개최



초여름의 북국이 뜨거운 열정으로 타올랐다! 5월 25일 7시 30분, 2025 제 1 자동차흥기 장춘마라톤대회 출발 총성이 장춘체육중심에서 울렸다. 34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3만 5,000명 선수가 아침햇살 속에서 북국 초여름의 시원함을 만끽하고 '열정의 장춘마라톤' 악장을 연주하면서 매력적인 도시에 감동적인 한복의 그림을 그려냈다.

5월의 장춘은 화사한 꽃들이 다루어 피어나고 있다. 이는 마라톤의 최

적의 계절이다! 이번 대회는 마라톤, 하프마라톤, 건강달리기 3개 종목으로 나뉘었다. 42.195킬로미터에 달하는 마라톤 코스는 마치 리봉마냥 '자동차도시'의 강인함과 '조각도시'의 예술적 로맨틱, 그리고 '삼림도시'의 초록 향기를 련결시켜 선수들로 하여금 록색과 함께 이 행복한 도시의 왕성한 맥박을 느끼도록 했다.

발걸음으로 장춘의 아름다움을 탐색하는 수만명의 선수들 뒤에는 한 도시

와 수많은 숨은 영웅들의 전심전력으로 되는 수호와 '도움'이 있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45명의 심판원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엄밀한 태도로 경기가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했으며 심판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 8개의 지정 치료병원, 23개의 의료소, 30대의 구급차, 90팀의 이동 AED 응급, 75명의 응급구조원, 450명의 의료자원봉사자, 220명의 의료 및 응급 일꾼들이 코스 전 구간에서 선

수들의 안전을 지켰다. 근 1만명에 가까운 경찰과 보안일꾼들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다방면으로 대회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했다. 3,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물자 입고, 현장 인도, 경기후 봉사 등 대회보장의 여러 일터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열정 넘치는 미소와 세심한 봉사로 42.195킬로미터 코스의 온정어린 존재가 되었다.

2시간이 넘는 각축 끝에 에티오피아 선수 세보카 네구스 에레가 2시간 12분 43초로 남자조 우승을 하고 케니아 선수 케니스 키프로프 오물로와 케네디 퀴모이 나이베이가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했다. 중국 선수 황설매가 2시간 33분 48초로 여자조 우승을 하고 케니아 선수 왕말와 리디아 날라야카와 에티오피아 선수 알레미투 해루에 바나타가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했다. 이외 하프마라톤 여자조에서는 에티오피아 선수 물루에 메흐렘 멩기르가 1시간 13분 58초로 대회의 신기록을 갱신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료해에 따르면 2026 장춘마라톤대회는 2026년 5월 17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2026년의 봄바람이 다시 북국을 깨우며 꽃이 피어날 무렵 우리 다 함께 새로운 려정에 올라 이 격정적인 성화와 이 매력적인 도시를 목격하자! / 길림일보

60 리 평강별 모내기로 분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8개 벼생산기지는 모두 북위 40°에서 45°의 '황금벼재배지대'에 위치해있는데 우리나라 북방의 유명한 '벼의 고향'이다. 연변에서는 연변 입쌀 품질 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고 표준화 진척을 다그침과 동시에 시장화 배치를 돌출히 내세우면서 산업화 건설을 다그치는 것으로 연변 입쌀 브랜드의 영향력과 지명도를 적극

높이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벼 재배면적은 근 71만무에 달하는데 매년 벼 생산량이 5억근으로 안정되어있다. 사진은 5월 23일 모내기철을 농철세라 기계화 모내기로 분주한 60리 평강별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의 촌민들.

/ 안성근기자.

박경남특약기자

